

사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는 돈이라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는 건강이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일 것이다. 건강해야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퇴색하면 의욕도 줄어든다. 짜증도 나고 싫증도 느낀다. 결국 건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보다도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권력, 경제력 등을 모두 확보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허사다. 그런 데도 현대인들은 오로지 출세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위해서라면 애정 없는 섹스는 물론 자신의 장기까지 매매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요즘 세상의 풍속도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나쁘게 말하면 미친 세상이다.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도 아닌데, 이른바 성공이라는 과실을 얻는 경우는 드물다. 획득한 경우에도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이다. 마음을 삭막한 폐허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삶이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관차에서 하차해야 한다. 내리지는 않더라도 파노라마처럼 전개되어가는 바깥 경치에 빠져들 필요는 있다. 인생은 다시 오지 않는다. 때문에 매 순간이 소중하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시간. 쉽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영원 속의 한 점인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다. 왜 그랬을까.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1849년 12월, 엄청난 죄를 지어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된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집행장 앞에서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 집행관을 그에게 마지막 5분을 주었다. 그 5분도 점점 흘러 마지막 1분만 남았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최후의 1분도 다 지나갈 무렵, 그때 황제의 명을 받은 전령사가 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왔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하면서, 결국 황제의 명으로 살아난 이 젊은이는 4년간 시베리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이 젊은이가 바로 도스토예프스키다.

행기를 마치고 나온 후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사지에서 돌아오면서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이다. 쉽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결코 헛되이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때로 시간의 지루성을 느낄 때가 있다. 헛되이 보낼 때도 있다.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말이다.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이런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서글픈 일이다. 때문에 현재를 즐겨야 한다.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더해 갔을 때 인간의 아름다운 역사를 쓸 수 있다.

그런데도 연조 깊은 분들의 추잡한 욕망에 그득 찬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에는 정치인도, 학자도, 종교인도, 연예인도, 돈 많은 부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미친 세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세상에서 갑자기 죽음을, 때로는 난폭운전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은 죽음뿐이다. 죽음이 아닌 인생을 관조하면서 이런 병리적 현상들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분명히 있다. 그것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 과욕을 말이다.

강성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대교수 철학박사소설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피히테

독일의 작은 도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피히테는 가정교사 노릇을 하며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여성 잡지를 발행하려고 하였지만 어떤 출판업자도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다. 비극과 단편소설을 써보기도 했으나 역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바로 그때 한 대학생이 칸트철학을 가르치는 개인교사가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이 일로 피히테는 한껏 가슴이 부풀다. 그러나 학생의 어머니와 한바탕 싸우고 난 후 또 다시 일자리를 잃는다. 절망에 빠진 그는 칸트를 방문하기로 맘먹는다.

칸트가 썼다고 간주하였다. 그 후 저자가 칸트가 아니고 피히테임을 밝혀졌을 때 해 주지 않았다. 요란하게 접근해가는 그에게 칸트는 말대꾸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이 와중에 피히테는 칸트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 하지만 이 당돌한 시도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존경해 온 '피히스 베르크의 대철학자'는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았다. 요란하게 접근해가는 그에게 칸트는 말대꾸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이 와중에 피히테는 칸트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 하지만 이 당돌한 시도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노발대발한 피히테는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주변의

만류로 사태는 겨우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 제자의 논문내용이 문제가 되어 이를 옹호하던 피히테는 다시 어려움에 빠지고 만다. 급기야 교육부 당국에 협박성 편지를 보낸 일로 인하여 피히테는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다시 베를린 대학 교수로 복귀한 피히테는 심오한 철학 강의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사로잡는다.

저 유명한 연설 <독일국민에게 고함>은 프랑스군에 점령당한 베를린에서 행해졌다. 프랑스혁명을 누구보다 반겼던 피히테는 스스로 왕관을 쓴 나폴레옹이 유럽 전체를 정복하려 하자 '그야말로 모든 악의 화신'이라고 간주하게 되었다.

그러하여 프랑스 관리가 감시하는 가운데서도 결연히 나폴레옹에 반대하고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프랑스에 대한 조국(독일)의 해방전쟁이 시작되자 피히테는 제자들을 군에 입대시켰고, 그 자신도 정훈장교로서 전쟁에 참여하려 하였다. 그러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장티푸스에 걸린 아내를 간호하다가 그 자신이 감염되어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독일 관념론의 대표적 철학자인 피히테(1762년-1814년)는 사물 그 자체를 인정하는 독단론이 인간으로부터 자발성을 빼앗아간다고 보았다. 반면에 오직 표상(관념)만을 인정하는 관념론은 나(자아)를 자유롭게 독립적이게 해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히테는 관념론의 편에 섰다. 그에 있어서는 주관이 외부의 대상(질료)까지를 산출(정립)하고야 만다. 칸트에서의 오성(悟性)이 유(有)는 것에서 유(有)는 것)를 만들어내는 우주제자자 같은 것이라면, 피히테에서의 정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聖靈)처럼 무(無)는 것에서 유(有)는 것, 만(萬)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주관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는 피히테의 철학을 우리는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부른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배려

2018년 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2,367,607명으로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4년 3.5%에서 2018년 4.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1,070,566명(45.2%), 태국 197,764명(8.4%), 베트남 196,633명(8.3%), 미국

151,018명(6.4%), 우즈베키스탄 66,433명(2.9%), 일본 60,878명(2.6%), 필리핀 60,139명(2.5%) 등의 순이다. 이들 대부분은 도시 밖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며 한국어가 서툴러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고 방역 정보 및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도 확보하기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

마스크를 착용은 자신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기 위함이며, 확진자 발생정보, 동선, 공적 마스크 구입 정보등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쉽게 정보

를 취득하지 못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스크 착용 및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고 그들의 신변안전과 더불어 주변 주민들의 심적 안심 및 지역사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경장 박성균

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6일 월요일 (음력 3월 14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lucky/unlucky days and advice. Includes signs lik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Includes contact info for circulation and advertising.

Large advertisement for HANSUWON Energy. Features images of various energy sources (solar, wind, hydro, biomass) and text promoting them as the best energy sources. Includes the company logo and name: 한국수력원자력.